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구윤정^o, 홍선연^{*}

^o위덕대학교 간호학과,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e-mail: yjkoo@uu.ac.kr^o, hsy1009@daum.net^{*}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Yoon Jung Koo^o, Sunyeun Hong^{*}

^oCollege of Nursing, Uiduk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229부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Jeon(2004)의 성지식, Ho(2009)의 성태도, Jo(2014)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건강증진행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여학생의 성지식이 높았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 교육은 저학년이 적절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높아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지식(sexual knowledge), 성태도(sexual attitude), 생식건강증진행위(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간호대학생(nursing students)

I. Introduction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이성교제가 활발해지며, 성접촉 등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한 시기로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 감염 등의 증가로 생식건강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병이나 에이즈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정도가 낮고[2, 3], 이와 관련된 정보 또한 또래친구의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2, 4]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분위기,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의 부정적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으로 낮은 성지식수준 및 무관한 성태도 등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이와 관련된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지식은 대체로 높았고[5, 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거나[7] 혹은 낮게 나타났다[8, 9]. 또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성행위에 따른 책임감을 인식하여 피임 지식을 알고 실천하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을 미연에 방지하며, 성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병을 예방하고 생식기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혼전임신 시 결혼을 서두르거나 인공유산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인공임신 중절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미혼 대학생이 수술을 선택할 경우 안전하지 못한 불법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 생식건강에도 위협요인이 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10].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 가정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어려운 실정하기에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건강을 증진을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전한 태도, 도덕적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성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기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간호대학생 1, 2, 3학년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및 미참여 설문지를 제외하고 1학년 82명, 2학년 80명, 3학년 67명이 참여하였고 남학생 33명 여학생 196명 총 229명이다.

3. Research Tools

성지식은 Jeon(2004)이 개발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으며, 낮을수록 성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태도는 Ho(2009)의 성태도 측정도구를 수정한 35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Jo(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Data Collection

연구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의 협조를 요청한 후 질문지를 직접 배포, 수거하였다.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이었다.

5. Data Analysis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으로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건강증진행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성지식은 23.75±6.42점, 성태도는 3.16±0.36점이었다. 이 중 쾌락 유희적 성 2.91±0.47점, 혼전순결허용성 3.45±0.68점, 성 허용성 2.68±0.55점, 동성에 허용성 3.44±0.87점, 낙태 허용성 3.54±0.65점이었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3.44±0.45점이었고,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안전 성행위 3.52±0.51점, 성행위 책임감 3.47±0.50점, 생식기 건강관리 3.27±0.56점, 성병 예방 3.50±0.55점, 여학생의 생식기 위생관리 3.47±0.51점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여학생이 24.16점으로 남학생 21.0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0, p=.013$). 기독교(2.92±0.45)를 가진 대상자보다 천주교(3.22±0.36)와 무교(3.22±0.33)인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7.13, p=.000$). 부모님의 성태도가 보통인 대상자(3.12±0.35)보다 개방적인 대상자의 성태도(3.30±0.35)가 유의하게 높았다($F=3.11, p=.046$). 음란물을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3.04±0.37)보다 한 달에 한 두 번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태도(3.26±0.34)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4.86, p=.003$). 생식건강증진행위는 2학년이 3.51±0.38점으로 1학년 3.32±0.4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23, p=.016$).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58, p=.029$), 외동아들 및 외동딸의 생식건강증진행위 3.15±0.67점보다 장남 및 장녀의 생식건강증진행위 3.48±0.43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성지식, 성태도($r=.237, p<.001$), 생식건강증진행위($r=.160, p<.005$)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지식이 높았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는 1학년이 낮게 나타나 저학년이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안전 성행위, 성병 예방, 생식기 위생관리가 전체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 학생과는 달리 의학적 지식 기반이 있는 이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M. Koo, and H.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 [2] G. S. Jeon, H. Y. Lee, and S. J. Le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1, pp. 45-68, 2004.
- [3] H. Y. K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p. 25, 2007.
- [4] K. R. Shin, H. J. Park, K. E. Bae, and C. Y. Cha,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6, pp. 624-633, 2010.
- [5] K. R. Shin, H. J. Park, and C. M. Hong,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Adult Nursing*, Vol. 22, No. 4, pp. 448-456, 2010.
- [6] M. A. Shin, and J. H. Choi,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9, No. 4, pp. 613-624, 2010.
- [7] G. S. Yoo, and S. H. K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01-118, 2010.
- [8] K. Y. Lee, and I. O. Sim,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34, No. 1, pp. 159-189, 2013.
- [9] Y. K. Yang,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159-169, 2012.
- [10] H. Y. Jo, Y. H. Kim, and H. 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 31, No. 5, pp. 29-43, 2014.
- [11] K. S. Jeon, H. Y. Lee, and S. J. Le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1, pp. 45-68, 2004.
- [12] S. M. Ho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Table 1.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	21.09±6.31	-2.50	.013	3.11±0.41	-0.86	.386		3.34±0.53	-1.31	.191	
	여	24.16±6.35			3.17±0.35				3.45±0.43			
종교	기독교	24.11±5.81	0.39	.759	2.92±0.45				3.47±0.40	0.37	.769	
	천주교	23.00±5.53			3.22±0.36	7.13	.000	a<b,d	3.40±0.44			
	불교	25.30±5.03			3.07±0.26				3.55±0.37			
	무교	23.63±6.76			3.22±0.33				3.43±0.47			
학년	1학년	22.75±6.26	1.56	.212	3.13±0.39	0.48	.615		3.32±0.46	4.23	.016	a<b
	2학년	24.15±6.49			3.19±0.33				3.51±0.38			
	3학년	24.46±6.47			3.17±0.35				3.49±0.49			
출생 순위	장남/녀	23.06±6.45	1.48	.228	3.18±0.32	0.37	.685		3.48±0.43	3.58	.029	a>c
	차남/녀	24.27±6.45			3.16±0.40				3.43±0.42			
	외동아들/딸	25.40±5.77			3.09±0.36				3.15±0.67			
군복무 여부	병역필	20.73±6.90	-0.30	.762	3.21±0.36	1.29	.206		3.50±0.48	1.70	.099	
	병역미필	21.43±5.92			3.02±0.44				3.19±0.54			
거주 형태	부모님과	23.69±6.56	0.01	.990	3.14±0.37	0.67	.511		3.45±0.46	0.78	.457	
	기숙사	23.83±6.07			3.17±0.31				3.39±0.39			
	자취	23.77±6.68			3.21±0.38				3.49±0.50			
부모님 성태도	보수적	24.75±5.55	1.82	.164	3.16±0.37	3.11	.046	b<c	3.50±0.36	3.12	.046	
	보통	23.25±6.84			3.12±0.35				3.36±0.51			
	개방적	22.75±6.97	0.94	.348	3.30±0.35				3.52±0.4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24.12±5.99			3.16±0.35	-0.03	.971		3.41±0.45	-0.90	.367	
	대졸 이상	23.32±6.89			3.16±0.37				3.47±0.45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3.82±6.16	0.17	.860	3.13±0.35	-1.27	.203		3.44±0.44	0.20	.837	
	대졸 이상	23.67±6.72			3.20±0.36				3.43±0.46			
성에 관한 지식	초등학교	24.00±6.78	0.49	.610	3.21±0.36	2.19	.113		3.45±0.49	0.12	.881	
	중학교	23.70±5.55			3.11±0.34				3.43±0.39			
처음 알게된 시기	고등학교	22.38±8.55			3.16±0.44				3.41±0.50			
	이후	24.00±6.28	1.30	.262	3.20±0.38	1.47	.201		3.44±0.47	0.89	.485	
성에 관한 지식	가족	21.50±8.03			3.06±0.47				3.32±0.63			
	선생님	23.43±6.81			3.11±0.31				3.48±0.39			
알게된 경로	인터넷	25.89±4.55			3.23±0.31				3.48±0.40			
	책이나 잡지	23.11±6.21			3.32±0.31				3.24±0.33			
	대중매체	24.08±5.34			3.21±0.39				3.46±0.42			
	본적 없음	23.95±6.43	1.17	.322	3.04±0.37	4.86	.003	a<c	3.51±0.38	2.14	.095	
음란물 본경험	한 두번	23.99±6.11			3.23±0.35				3.43±0.46			
	한달에 한두번	23.58±8.27			3.26±0.34				3.34±0.44			
	자주	20.53±6.33			3.16±0.28				3.20±0.66			
	전혀	24.41±6.01	1.22	.295	3.21±0.39	1.42	.243		3.40±0.43	2.70	.069	
성관련 대화 경험	없음	23.71±5.95			3.13±0.34				3.49±0.40			
	한두번	23.71±5.95			3.13±0.34				3.49±0.40			
	자주 나눔	22.17±9.04			3.20±0.39				3.30±0.65			
이성 교재 경험	경험없음	22.76±7.38	-1.24	.214	3.15±0.38	-0.39	.691		3.45±0.41	0.27	.781	
	경험있음	24.03±6.11			3.17±0.35				3.43±0.46			